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편집인	주필	간담	학예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김기우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1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17호 1993년 11월16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호 우편물 (가)인정

1

용인 제15대 정·부학생회장

최진선·김기우군 당선

57.5% 투표율에 84.2% 지지율인 2천5백81명 찬성

당선자 인터뷰

“학생회 강화라는 전제하에 사업 진행할 터”

용인캠퍼스 제15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최진선(인문·사회 4) 군을 만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기쁩니다. 학우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경선으로 예상했던 선거가 단독후보로 치러지게 되었는데는 학우들이 후 부학생회장을 뽑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작년과 투표율이 비슷해 한숨 돌렸지만

57.5%만 투표율은 학생회가 학우들 속 깊숙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학우들과 밀착되지 않는 학회라는 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84.2%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고 당선되었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각 단위의 학생회 간부들 뿐 아니라 학우들이 부처 힘들고 중심을 못 잡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학

우들이 학생회라는 테두리에서 많이 이탈도 했었구요. 따라서 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가 지난 한해 동안 거의 학생회로 수렴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한해동안 제대로 지치지 못했던 14대 용인주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평가가 지난 불신임 투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번 선거에서 재확인 됐다고 생각됩니다. 학우들이 자주적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갈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후생복지관 건설투쟁에 대한 견해는
=단위 학생회연합이 지금 상황에서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학우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니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입니다. 후생복지관은 학생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이후 10년은 적지 않을 것으로 건설돼야 합니다. 신장동의 완공되는 내년 6월, 무

슨일이 있더라도 후생복지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5대 총학생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가장 먼저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우들이 직접 참가해서 준비하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세계인속예술축전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학우들의 성과가 이어 내년에는 평양대회를 초청, 95년 통일조국을 위한 자주교류 사업을 대동조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됐듯이 내년도 등록금인상도 역시나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2년동안이나 등록금인상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3백50만원이 넘어가는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어떻습니까? 학원의 일주제인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연대속에 재단과 학교측의 제정을 과학적으로 분석, 객관적으로 타당한 등록금 책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학원지주화를 위해서 양형버스 연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원화적인 양형연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교 40주년을 맞은 '외대의 날' 행사나, 세계인속예술축전, 등록금 투쟁 등 직면하게 될 사안들도 그렇고 학원 지주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왕산 학생회강화라는 기본 전제 아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생회는 간부들 몇몇으로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세태 지지도 않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학생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기대와 믿음을 던져주실 학우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광주교대생 한상용군 분신

유서내용, '교육재정 확보, 임용고시 철폐'

지난 10일(수) 오전 10시 10분 광주시 중앙동 광주교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이 학교 학생 한상용(사회·교육·4) 군이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한 뒤 투신하였다.

35도형에 기도까지 화상을 입은 한군은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기도관개수술을 받았으나 투신으로 인한 장기과열로 12시 10분경 사망했다.

한군은 '교육재정확보, 임용고시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광주 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소속 1천여명의 학생들은 이날 6시부터 비가오는 가운데 유서남독 및 추모식을 갖고 가두선전에 나섰다.

목격자 김대산(체육교육·3) 군에 의하면 "송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한군이

떨어진 옥상에서는 동료·종교, 대동행에 보내는 유서 9장과 1천2백마리의 종이하이 발견됐다.

대동행에게 보내는 유서에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입니다. 저학력이 주장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학는 몇몇학교 등이 있는 교사로 서서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

한군이 어머니에게 남긴 글에는 쓰러져가는 초등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예비교사의 고민이 잘 나타나 있다. "...이제 공부만 하기로 어머니와 약속했는데 한 선생의 죽음 앞에서, 한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며 기만하 있을 수 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예비교사들이 어머니의 자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
=같은 후배인 임준상군은 "4년 동안 오직 잊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 애쓰었는데..."라며 참교육만을 생각했던 한군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

한군의 분신은 지난 9월 8일 이하교 이광동 열사의 분신에 이어 교육개혁을 위한 두번째 분신이다. 이광동 열사의 분신 당시 정부와 언론은 취입이 되지 않아 이를 비판해 자살했다며 애써 그의 죽음을 왜곡·축소했다.

남충현을 비롯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한군의 분신이 그와 같이 사회적 외면을 받지 않도록 교육재정확보와 임용고시철폐에 대한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동현 기자>



화살의 힘

▲3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항상 다투기 일쑤였다.

이를 걱정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뜬 시기가 됐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세아들을 불러 놓고 화살을 가지게 했다. 그리고 이 화살을 한개씩을 부여드리고 한 후 두개, 세개씩을 계속하여 부여드리게 했다. 그러자 이 형제들은 모두 화살을 쉽게 부여받았지만 세개를 한꺼번에 부여받던 사람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동화다. 이 동화는 화살을 통해 단결의 힘이 얼마나 강간가를 일깨워주게 하는 교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동화의 교훈을 악용해 책을 화살들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2월(금) 각 사립대학교 총학생들이 모여 답합을 했다. 이 답합의 내용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것이었다. 즉 올해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16.5% 인상한 데 이어 내년도 등록금을 10~15% 인상할 것을 잠정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대, 예능 계열은 등록금이 4백만원대로 올랐고 의대, 약대 계열은 4백만원이 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11%, 91년 15%, 92년 18.18%, 93년 10~15%, 과연 등록금은 언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인가.

물가가 올라갔다고 등록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4.5%인데 비해 등록금은 18.18%가 오른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반면 등록금이 올랐다고 장학금, 또는 직원임금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육환경이 개선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내놓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 또 사립대학들은 재정을 구실로 올해 초 밝힌 것처럼, 교육의 성이아니 되어야 할 곳이 임시 부장 같은 버리에 휩쓸려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내년 역시 어김없이 춘투(春鬪), 즉 등록금 투쟁을 벌여야 할 것 같다.
지금부터 우리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나무부터 단련된 화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화살들이 모여야 내년엔 책은 화살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김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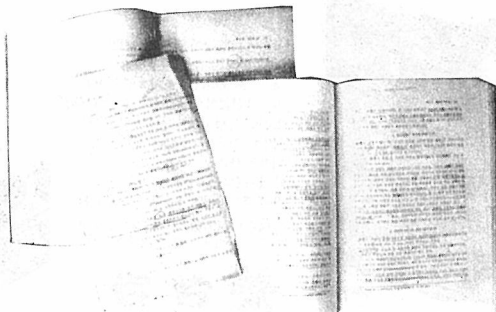
지면안내

- 3면: 교수협의회 총장후보 예비선거
- 4면: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논의
- 6면: 전국총학생회 선거 분석
- 7면: 노래속의 여성 <3>-부부속의 여성상
- 8면: 그림돌리기-외대인의 사회진출 현황
- 9면: 남충현 미문화원 시위 기동취체
- 10면: 중흥외대, 민주총장과 함께 달린다(4)-교수와 동문에게 듣는다.

기획광고—이렇게 합니다 <8>

당신의 찢어진 양심,
더럽혀진 당신의 양심,

이제부터라도 가꾸십시오.



도서관을 가득 메운 책들,
그러나
무식과 관 책들 중
크면의 라
나서 형성이
상처 형성이
1만근적 외대인이
함께 보아야 하는
책들.
그러나
그 실지 않은
책들.

외 대 학 보

그림돋보기-외대인의 사회진출 현황

외대인이 선호하는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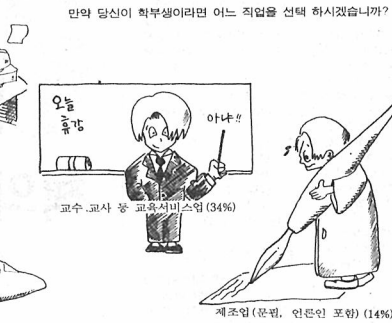
남성 : 제조업(문필, 언론인 등)

여성 : 교육계(교사, 교수 등)

40여년의 긴 세월과 5만 여명의 학자를 배출해낸 외대는 명문사학으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것임. 그 위치와 정도를 짐작해 보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많은 대학 교육기관이 증가한 이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체적 자기 진단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외대인의 사회진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외대 현실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문교 발전을 학부주체 차원에서 조망시키나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지에 이용할 표본이 모집단의 전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기대했던 만년의 자료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문제로 인하여 이번 조사분석의 방법론을 일반적인 지표조사에 비해 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두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외대인의 소득 수준은 평균(월) 1백 5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백 90만 5천원, 여성이 81만 6천원으로 남녀간에 큰 소득격차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열별로는 언론계이 1백 54만 5천원, 비언론계이 1백 59만원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큰 차이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학부생이라면 어느 직업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어문계열과 비어문계열·서울과 용인간 월평균 소득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원, 비어문계열이 1백 59만원으로 나타나 계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큰 차이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4년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별 수입을 보면 서울캠퍼스가 1백 1만 4천원, 용인캠퍼스는 1백 5만 2천원으로 집계돼 소득수준의 격차는 캠퍼스간의 격차기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졸업 후 사회진출 기간과 학력수준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얻게 될 월 평균소득을 예측해 보았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Y=11.8a+26b로 Y는 소득수준(단위: 만원), a는 졸업 후 기간, b는 학력수준(학사: 1, 석사: 2, 박사: 3)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들면 본교를 졸업해 10년이 지나고 석사학위를 소지하였다면 11.8×10+26×2=116.7만원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외대인은 성별에 따라 직업 선호 경향이 다르고 여성에 비해 남성은 제조업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교육계 및 외국기관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남성은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 및 금융, 부동산, 임대업 순으로 선호 직업이 나타났으며 여성은 교육 서비스업 및 도소매, 금융, 부동산, 임대업 순이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사회진출시 전공과 컴퓨터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68%의 졸업생들이 전공과 컴퓨터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1%, 여성은 62%가 전공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취학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교사, 교수 등 교육서비스업 (22%)
금융, 보험, 증권업 (21%)
제조업(문필, 언론인 포함) (17%)
숙박, 음식, 통신,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7%)
도소매 및 소매점 유통 수단 (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
금융 행정 및 국공, 사회보장업 (4%)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 (4%)
기타 (15%)
만약 당신의 학부생이라면 어느 직업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교사, 교수 등 교육서비스업 (34%)
금융, 보험, 증권업 (21%)
제조업(문필, 언론인 포함) (14%)
숙박, 음식, 통신,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7%)
도소매 및 소매점 유통 수단 (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
금융 행정 및 국공, 사회보장업 (4%)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 (4%)
기타 (15%)
취학의 직업에 대해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만족 (26%)
조금 만족 (34%)
보통 (24%)
조금 불만족 (12%)
매우 불만족 (4%)
남녀가 직업 선호 경향은 서로 동일하기? 그리고 남녀가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유의수준 0.05까지)
어문계열과 비어문계열 사이에 월평균 소득차이는 있는가? (유의수준 0.05까지)
84년 이후 이문, 용인캠퍼스 간 월평균 소득의 차이는 있는가? (유의수준 0.05까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유의수준 0.05까지)
비어문계열 졸업생이 학업에 대한 전공 관련성이 어문계열 졸업생 보다 높은가? (유의수준 0.05까지)
이해 지면관계상 생략
설문대상 : 외대 71년에서 93년 졸업생 (3만7천78명)
주출처 : 동원회 (1993년 11월)
설문조사 방법 : 우편 조사
표본크기 설정 : 유의수준 0.05, 허용오차 2.5%만, 표본크기 1천명, 회수율 8.8%
조사기간 : 1993년 7월20일~9월30일
설문기관 : 통계학과 통계연구부

용인 캠퍼스와 교수기숙사

평수당

"선생님, 논문 발표회가 끝났는데 술 한 잔 하러 가실까요?"

"글쎄, 저녁식사나 간단히 하자."

오래간만에 권하는 술집. 졸업반 학생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약간 망설임이 있는 대답이다. 논문 발표회가 늦게 끝났고, 학생들과 어울려야 하는 장에 가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용인캠퍼스는 캠퍼스가 넓고 자연환경이 좋아 교육여건이 좋지만, 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강제로 집을 옮기기 어려운 교수는 학교까지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다.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데 3시간 남짓 걸린다. 그래서 연속 수업이 있는 날은 용인에 머문다. 용인에서 머무는 날은 아침에 여유가 생기고 몸도 편하다. 연구실도 늦게까지 남아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잠잘 곳이 따로 없다. 주위에 계산 교수 중에는 본당에 세를 얻어 생활하는 분도 있고, 학교 앞에서 하숙하는 분도 있다. 만약 학교에 교수기숙사가 있다면 좋으련만...

용인에 처음 부임하는 교수들은 대충 몇만 동원은 이러한 생활을 할 것이다. 특히 자연대의 교수님들은 직접 실험을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할 때 학교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에 기여하는 대학도 있다. 교수기숙사의 존재는 교수들이 연구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교수의 생활은 활발한 연구와 충실한 강의이다. 교수들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속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유능한 교수가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강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왕산에 기숙사가 생기면 교수들의 연구열이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과의 대화도 활성화 되어 학교의 공동화 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왕산에 기숙사가 생기면 교수들의 연구열이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과의 대화도 활성화 되어 학교의 공동화 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이영학 <사학과 교수>

왕산에 기숙사가 생기면 교수들의 연구열이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과의 대화도 활성화 되어 학교의 공동화 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이영학 <사학과 교수>

통학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

통학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매일 통학버스와 학교 사이를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모두 12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전화 : 33-3008)

통학버스를 통해 통학을 하는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통학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전화 : 33-3008)

통학버스를 통해 통학을 하는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통학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전화 : 33-3008)

통학버스를 통해 통학을 하는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통학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전화 : 33-3008)

외대내 정보통신망 개설 안내

이문

왕산에 접속해야 하므로 전화할 때 '8번'을 누르고 '4385'를 눌러야 합니다.

왕산

구내 전화선으로 '4385'만 누르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0335-30-4385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문인 왕산인 모두 모여 정보를 나누어요

교내 정보 통신망

왕산 학생회 4층 컴퓨터 연구회 '돌컴'에 정보통신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호스트 프로그램 : 호환용 3.99
- 9600 BPS 모뎀지원
- 한글자체 내장 (조합형)
- ① 4385, 4386

천 리 안

졸업한 선배님들이 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보통신 전국망인 '천리안'에 외대동호회를 개설했습니다.

천리안에서 'Go Fsc'를 하면 외대 동호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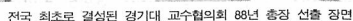
<접속을 위한 준비사항>

- ①XT 이상의 IBM기종의 컴퓨터
- ②2400~9600BPS의 모뎀과 전화선, 통신용 프로그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연구회 '돌컴'으로 문의하십시오. (0335-30-4428)**



애국외대 통일왕산 제11대 동아리 연합회



후배에게 물려줄 외대의 모습은(10)

<대학부>

〈대화부〉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인
유보와 틴스퍼리트훈련 중
지를 유보하고 간신히 일어
낸 평시군사작전권.



누가 갈등을 만들었는가

지난 12일(금) 소반도로 공사를 지지하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다.

〈한성준 기자〉

□수필

“흙냄새 풍기는 질그릇에 담긴 전통향을 마시고파”

언제 왔는가 싶은 가을 정취는 추위가 뒤 오는 탓인지 어느새 단풍이 들어 나뭇잎을 밀고 갔다.

건조한 공기에 나뭇잎들은 파스라불스라 거린다. 따라서로운가 한결이 그림다.

사람에게는 나뭇대로의 고유한 향이 있고 독목의 지기, 지기의 개성이 있다. 잣집 역시 나뭇대로의 개성이 있다. 휴식처가 되어 편안할 곳, 스승과 제자의 배움터다. 고된 음악은 감상할 수 있는 곳, 연인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곳, 친구와 무리지어 재담하며 떠날 수 있는 곳, 이런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잣집. 나뭇대로의 향이 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취향에 따라 잣집을 찾는다. 잣집 고유의 향에서 마음과 마음이 평화되고 통하는 기쁨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막상 잣집을 마시려고 고 보인 우리 학도들은 정작 잣집이 마땅치 않다. 예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커피숍들은 일류적인 커피 전문 제인점 형태를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이 만든 두백한 질그릇이 생지나. 그 안에 담긴 귀중한 향, 그 어떤 아름다운 기질과 향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아늑함과 훈훈함이 그리워지는 요즘 거리의 풍경이 우리 마음을 환출시한다. 물밀듯 밀려오는 외국문화에 우리의 외무기는 더욱 추겨 세외기 비 문은 흠츠리 다.



어릴때 어머니, 할머니의 따사로운 손길이 그림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이 손길 미치지 않는다. 우리 문화가 외세에 밀려들고 있는 세대는 세대를 넘어 사라져 가는 게 요즘 대학가다. 가끔 “말이 먹어 요 배가 고프는데 먹여라 할 사람인데 말 많이 먹어라” 하더 젊은이들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던 그 손길은 건네온데 없고 오�히려 젊은 학생들의 머리 상단에 피어난 지친 부표장한 모습으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다. 장차 공부를 해야 할 친구들은 일하고 일해야 할 친구들은 회화나 나 시간을 버리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 마음의 양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장바지에 티셔츠를 입고도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세대의 문명,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풍류, 신발, 약재사리, 화장품의 상점들 덕분에인지 너무나도 멋있고 세련된 모습들로 현란하다. 레코딩에서 흘러나오는 팝 뮤직들은 한층 더 거리의 기세를 부추긴다. 한때 외세에 반기를 들며 구호를 외치던 시대도 어느때 밀라지고 이제는 “외세를 누리는 시대”로 다가선 것이다. 평안한 외세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로 대화가 거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네 시대의 바늘로 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기성세대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반항을 일으키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제는 외세의 문명,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신축화 변모해 가는 대학가 신축과 담락이 물들기도 전에 어느새 나뭇잎은 밀려들어 파스라불스라 거린다.

□영화평 - '피아노'를 보고



문화이식과 거부적 '불협화음'

단순한 내용, 복잡한 구조 피아노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관객들의 몫이다. 누구나 알고 있고 시종일관 동시해 결론이 났다. 나와 있는 영화이다. 그렇다만 과연 피아노는 어느 정도로 부실하고 불완전한 영화인가. '난' '말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피아노는 단순 구조의 이야기 틀을 복잡하고 상징적, 중층적으로 얹으면서 제인 뉴질랜드의 시기에 의해 다각적인 알레고리 속으로 난해함을 드러내기도 하며 미래 영화로 추상 발기도 한다. 영화 전반에 걸쳐 아이러니

한이게 보였던 들은 들로 나뉘게 된다. 아다를 소유한 것은 남편 슈트라이더지만 아다의 안면을 볼 수 있고 아다의 사정을 소유한 것은 베인즈이다. 이것은 상투적이고 비극적이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남편 슈트라이더는 뉴질랜드의 땅을 사서 정착하고 있다. 본국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개척의 사업이었던 그들에게는 뉴질랜드는 식민지로써 그들의 식민주의를 건설하는 개척지가 된다. 그래서 슈트라이더는 식민지 경제 토대의 독립적 성장을 심고 자기자화한 하위하고 그것을 소유하려 든

하지만 제인 뉴질랜드가 상투적인 서구의 감독이었다면 상투적인 중독이론이나 공복한 스타일의 감독이었다면 그녀는 사민주의의 부흥을 통해서 이 사민주의의 실패한 것을 그렸을 것이다. 오히려 제인 뉴질랜드는 자신이 출생지에 서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라고 굳게 믿었던 이 빅토리아 문화속에 숨어 있었던 이 아다에 의해서 그녀가 스스로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여준다. 아다는 영화가 끝날때 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의 피아노를 뉴질랜드 비록자 깊숙이 묻어두고 오고 간다. 심지어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기도한다. 배위에서 피아노를 두는 밧줄에 매고, 옥을 올려놓고 피아노를 바다에 띄워드리고 베인즈에게 사정한다. 피아노가 바다에 빠지고 나뭇잎이 그녀도 깊숙이 묻어두고 아가게 되는데 이 장면이 피아노의 알레고리다. 그리고 그녀는 바다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비자 수면위로 또 올라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제국주의의 문화의 이식이자 전수인 그녀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지 않은 식민주의의 켜다 노골적인 표현으로 애기하면 이들은 식민주의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 두사람은 서구 제국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상, 자신들의 식민주의를 건설하는데 실패한다. 남편 슈트라이더는 결국 가정을 건설하는데 실패한다. 베인즈는 피아노라는 서구의 문화때문에 서구의 권력을, 서구의 정치를, 뉴질랜드에 이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제도는 영하는 아니나 라는 생각을 갖게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 깊은이라는 제도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고 식민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이들 입중이대로 교화에서의 '그런지' 연극을 생각해 보자. 그렇자 연극에서 괴물 남편은 자신의 땅을 물려 줄때 아내를 도끼로 쳐서 죽이려 했었는데 자신의 땅을 못보게 한 이라는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죽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살인행각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결국 굶기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연극을 놓고 그 '그림'을 캐드라는 사람을 자비없는 지배자의 전사와 부당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 나뭇잎의 지시와, 식민주의의 지배와 폭하는 마오의 폭력은 그런 하나의 밧줄로 간주하여 연극 무대를 영랑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 아다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영랑의 자신의 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통해서 제인 뉴질랜드는 서구인 뉴질랜드라는 지지를 영랑의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뉴질랜드에게 있어 서구의 식민주의는 영랑의 이해할 수 없는 타자라고 놓고 영화를 끝내 버린다.

서구가 자신의 바깥것을 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스스로가 타자가 되는 그 시점(Point of view)에 대하여

제도의 밧줄을 끊지 못하는 '아다'의 침묵

그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두 딸로 선 것이라고 믿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밧줄을 끊고 올라오는 것은 그녀가 과거에 슈트라이더의 아내였던 것으로부터 베인즈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문화의 물의 이미지로 '새로운' '다시 태어난' '부활' '다시 태어난'의 개념인 것이다.

베인즈를 일하게 하여 영화를 보고 싶었던 딸의 여성들은 이 장면이 바로 '베인즈'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다의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그녀가 당시에 서구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민주의의 메커니즘이 '아다'라는 말을 하며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다. 아다의 피아노를 통해

희망이 없는 문민정부의 개혁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어두웠던 지난 군사정권시대, 오늘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기 위한 희망이 없는 피와 땀으로 기억되리라 믿으며 살아왔던 5월 30일형의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혁의 따뜻한 햇살을 받지 못한채 '공안정국' 아래 학생운동을 탄압하고자 만든 병역법이 바닷이 살아남아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떠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다육이 20대 청춘을 모두 조국에 바친 이들은 이미 20대 후반이 되어 장성 군복무도 취업면령의 조차로 사회진출의 기회도 발달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으로 양심수가 된 이들은 더이상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도록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대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청년학생양심수들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해적교사는 선별없이 복직되어야 합니다!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고, 해적교사가 복직하여 일선에서 협교육 실현에 노력할 것'에 전교조 합법화는 시간문제다.'

지난 달 15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탈퇴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복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해적교사는 선별없이 복직되어야 합니다!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고, 해적교사가 복직하여 일선에서 협교육 실현에 노력할 것'에 전교조 합법화는 시간문제다.'

지난 달 15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탈퇴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복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